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 최선

무주군, 설천면 남청마을·무풍면 하덕마을 등 4곳 치매안심마을 지정

무주군은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 적성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

치매안심마을은 마을 중심의 치매예방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각각 현관 제막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과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들 자리에서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백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치매는 이제 온 국민 공동의 문제”며 “치매안마을은 온 마을이 유틸리티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군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은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돼 15일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각각 현관 제막식이 진행됐다.

한·적성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는 16일 관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처음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매년 4개 마을을 신규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2·3년 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 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비롯한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와 노인우울척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인지 자극 프

로그램(운동, 원예, 공예, 음악 등)도 운영한다.

치매 인식도 설문조사 후에는 ‘치매 바로 알기’와 ‘치매 예방수칙’ 등을 교육하는 한편, 쉼터 만들기와 벽화 그리기, 문화 달기 등 각 마을의 주민들이 선택한 특화사업도 진행한다.

농한기(11~12월)에는 치매안심마을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가정 방문 인지 선별검사와 인지 저하 시 진단검사 안내 및 예약 등 치매조기검진 및 교육을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장수군, 부처단계 대응보고회 갖고 방안 논의

장수군은 15일 최훈식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부처단계 대응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분기 중앙부처 협의 내용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핵심사업의 맞춤형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도 국가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은 △장수군 농촌협약(428억원) △장수군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190



여원) △비아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137억원) △죽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5억원) △양악마을 농어

/장수=고판호 기자

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36억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100억원) 등이다.

군은 보고회 이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 논의를 마련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체계적인 정부예산 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정부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의 선제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부서에서는 장수군의 장점과 상황을 부각하는 타당한 논리로 중앙부처가 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성공 개최 위한 2차 총회 가져

진안군은 오는 10월 3일~6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진안홍삼축제’를 앞두고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한 2차 총회를 가졌다.

15일 군청 강당에서 열린 2차 총회에서는 축제장 구성(안), 프로그램 및 예산집행 계획을 승인하고,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서 위원들은 10월 3일 오후 6시부터 진안을 주제로 한 화려한 불거리 가득한 개막식을 열기로 정했으며 진안 인삼·홍삼을 주제로 하는 ‘삼삼한 주제관’을 새롭게 운영하고, 미션 수행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인 ‘진안홍

삼 킹덤을 지켜라’와 진안고원 브랜드 상품·현장판매인 ‘싸게,싸게’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인 ‘트로트 진안고원’ 행사도 축제와 맞물려 개최하기로 했다.

전춘성 군수는 “방문객이 집중적으로 많은 축제 기간 중 행정의 유기적 역할과 효과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겠”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에 1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협약 체결국인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지난 13일 2차 입국을 완료했다.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 기대

진안군, MOU 체결 필리핀 계절근로자 2차 입국 완료

진안군은 1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협약 체결국인 필리핀 계절근로자 지난 13일 2차 입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입국 근로자는 총 35명으로 진안군은 당일 인계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노사관계,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18개 농가에 배치를 완료했다.

이번 입국 35명 필리핀 근로자들은 지난해 진안군에서 성실근로자 재 입국 추천을 받은 이사벨라주 7명과 지난 1월에 현지 최종면접에서 합격한 퀴리노주에서 신규로 입국한 28명이다.

또한 진안군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에서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농가들의

애로를 함께 해결하면서 근로자와 농가의 주민여건 및 소득향상을 위한 현장접침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 진안군 농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농업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영농능력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해 농민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최훈식 장수군수, 양파 농가 찾아 생육상태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12일 양파 주산단지인 산서면 일원 양파 농가들을 방문해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격려했다.

군은 앞선 9일 양파 주산지를 대상으로 달관 조사를 진행했는데, 생육재생기 이후 잣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육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최 군수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특히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비가 잦고 습도가 높아 노균병 등 병해충 확산이 우려돼 적용약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 교호 살포하고 이미 병든 개체는 반드시 제거하여 소각하는 등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양파는 토양 습도가 높은 곳에서 생육이 불량할 수 있어 뿌리의 활력 유지를 위해 물 빠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수시로 정비해야 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제5회 진안マイ산배 전국 시니어·실버 배구대회 성료

제5회 진안マイ산배 전국 시니어·실버 배구대회가 지난 13일~14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시니어·실버 배구 대회인 73개 팀 1,200여명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진안군체육회가 주최, (사)한국 시니어·실버 배구연맹이 주관하였으며, 배구경기가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문체체육회관을 비롯한 5개 경기장은 배구 동호회 회원들이 애로를 함께 해결하면서 근로자와 농가의 주민여건 및 소득향상을 위한 현장접침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진안군의 우수한 지역 농·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자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농·특산품 직거래장터에는 진안홍삼을 비롯하여 인삼, 곡물류, 장류, 인삼튀김 등 진안에서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을 선보였다.

대회 결과 광주무등산(실버 구봉산부), 통영실버(실버 금척부), 포항영일만(시니어 마이산부), 안양후먼스(시니어 홍삼부), 광주무등산(여자 시니어 용담호부), 전주지곡(여자 프리시니어 데미샘부)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촌 크리에이투어’ 공모 선정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의 자생력 증대를 위해 추진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선정돼 2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 확보(국비 50%, 군비 35%, 자부담 15%)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관광경영체가 민간의 여행사와 협업해 농촌에 특화된 테마관광 상품 개발·운영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무

주군은 이를 토대로 Re:Born in Muju / 무주1614’라는 브랜드명을 활용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촌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관광상품(체험·식사·숙박)과 지역축제(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마을축제 등)를 연계한 콘텐츠를 상품화해 온·오프라인 매체와 여행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및 판로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 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